

투데이 칼럼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전주승화원 협약을 환영하며

지난 1995년 용담댐이 착공되고 댐 상류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기까지 7년. 2001년 준공된 용담댐, 전북과 충청권 주민 150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은 금강 상류 우리 고장 진안에 위치한다.

높이 70m, 길이 498m, 총저수량 8억1500만t 규모다. 용담댐으로 이뤄진 용담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규모다.

여기서 흘러나온 물은 전북과 충남지역 일부에서 식수와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이 댐은 진안군민 1만2600여명이 보급자리를 옮겨야 하는 희생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친구들이 모두 떠난 동네에서 우리 아이는 쓸쓸함과 싸워야 했다.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노인은 은뎀으로 맞서 지켜야 했다.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는 걸 지켜만 보는 심정을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가족과 헤어지고, 이웃을 떠나보내는 설움은 눈물로도 씻을 수 없다.

진안은 용담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 농업·임업 생산기반 상실, 안개 등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진안군민들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난 20년간 지켜왔다. 민·관이 용담호 수질관리 자율실천을 다짐하고 대청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친환경적



김정길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 주민협의회 회장

품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물론 친환경 시설재사용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왔다.

수물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민들에게 울해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첫번째 소식은 바로 우리 진안군민도 용담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가슴 벅찬 소식이다.

어찌보면, 우리 진안군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지만, 이제야 먹게 됐다는 사실에 그동안 지역 정치권을 무척 놀라게 했나고 질타하는 군민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수물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전충성군수를 중심으로 진안군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 4월 용담댐 광역상수도 진안 전지역 공급기반 마련 관련 언론기자회견장에서 전충성 군수가 한 말을 기억한다.

전 군수는 "용담댐이 준공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용담댐이 20살 성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용담호를 건강하게 지켜온 건 바로 우리 진안군민들입니다."라고 한 말이 필자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수물의 아픔을 겪고,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받으면서도 용담호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굳은 다짐의 목소리를 냈다.

성장동력 확보도 물론 필요하다. 교육정책, 복지정책 모두 간과해선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물의 소중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전북, 충청권 주민 150만 명이 먹는 물을 지켜온 우리 군민들의 절반 이상이 그 물을 지금까지 못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말 잘하고 머리 좋은 정치

가는 많았다. 하지만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정치가는 많지 않았다.

이런 저런 규제는 다 받으면서도 정작 누려야 할 권리조차 찾지 못했던 우리 진안사람들의 권리를 지금 군수가 찾아냈다.

지금까지 봐온 정치인들과 비교해 언변력은 뒤진다.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했지만,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건 1년 조금 넘어 정치력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화려한 말보다 발로 뛰는 행동으로 그는 직접 보여주고 있다.

용담호 수물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민을 위해 권리찾기에 나서게 된 계기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주민들에게 듣고 가슴 속에 새겼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용담댐 수혜지역인 전주시와 진안군민이 전주 승화원을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까지 이끌어냈다.

감동수 전주시장을 직접 만나 건의해서 이끌어낸 값진 성과다. 가까운 전주 화장정을 이용하지 못해 멀리 타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군민들의 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요하다. 우리 진안군민들은 우리의 권리 찾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뫄쳐야 한다. 용담호 준공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그 시발점으로 삼아서 말이다.

사설

조택수 수필집 '외갓집 유자나무'

최근 정음사문화재 제정위원회 조택수 이사장이 첫 번째 수필집 '외갓집 유자나무'를 출간해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는 2018년 신춘문예에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이어 2020년 6월 월간 '수필과 비평'에 신인상으로 수필가에 등단했다.

이번 수필집은 조 이사장이 어린 시절 외갓집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우물가의 유자나무는 어머니를 회상하게 한다.

외갓집을 중심으로 한 외갓집 풍경이 한 장의 경계선 시골 풍경화처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훗날 외갓집을 다시 찾았을 때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유자나무는 세대 간의 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의 수필집은 자신의 호 소정(少井)과도 연관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소정(少井)은 샘골 '정음(井邑)'과 동질적인 '적은 우물'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조택수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부터 정음사문화재 제정위원회 이사장을 맡는 등 애항심을 바탕으로 향토 문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백제 가요 정음사문화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정음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정음사 농촌 발간 등 향토사 연구에 꾸준히 앞장 서 온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상곡관 유도회 전 부본부 부회장을 맡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제7회 정음시민의 날 기념사에서 2021년 정음시민의 장 문화장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조택수 이사장은 선천이 남긴 유품과 도자기를 정음시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에 기증한 고, 문서 120여 점은 부친과 조부가 남긴 유품이다.

그리고 신태인 생활문화센터에 기증한 도자기 140여 점은 각국 여행을 다니면서 40여 년간 수집한 특색 있는 도자기다. 앞으로도 조택수 이사장의 왕성한 활동을 더욱 기대한다.

전주한옥마을 조선시대 과거시험

전주시가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12월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전주에서 치르게 했던 과거시험인 '전주 별시(別試)'가 재현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11월 20일 전주전통문화연구원과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제4회 1593 전주별시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재현 행사로는 ▲과거시험(국공·한시) ▲전통무예 시연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과 급제자가 풍악을 울리며 시가행진 ▲사은숙배(謝恩肅拜)인금의 은혜에 감사의 인사로 절을 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행렬은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시작해 은화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사은숙배는 경기전 태조어진 앞에서 행해진다. 국공(國功)은 공도교육을 이수한 유소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실시된다.

한시(漢詩) 백일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너9 확산 여파로 사전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제는 '국난극복 전주(國難克復全州)'이다. 입운은(東)·동(同)·풍(風)·공(功)·흥(通)이다.

우리나라 과거(科擧)는 고려 때인 서기 95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글짓기와 경전 해석 시험 위주였다. 조선시대에도 과거제는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삼년시가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변동에 따라 통치 체제가 흔들리면서 과거 제도에도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결국 1894년에 단행한 갑오개혁에서 성균관을 근대식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면서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번 행사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 및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이다. 역사와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시진핑과 첫 화상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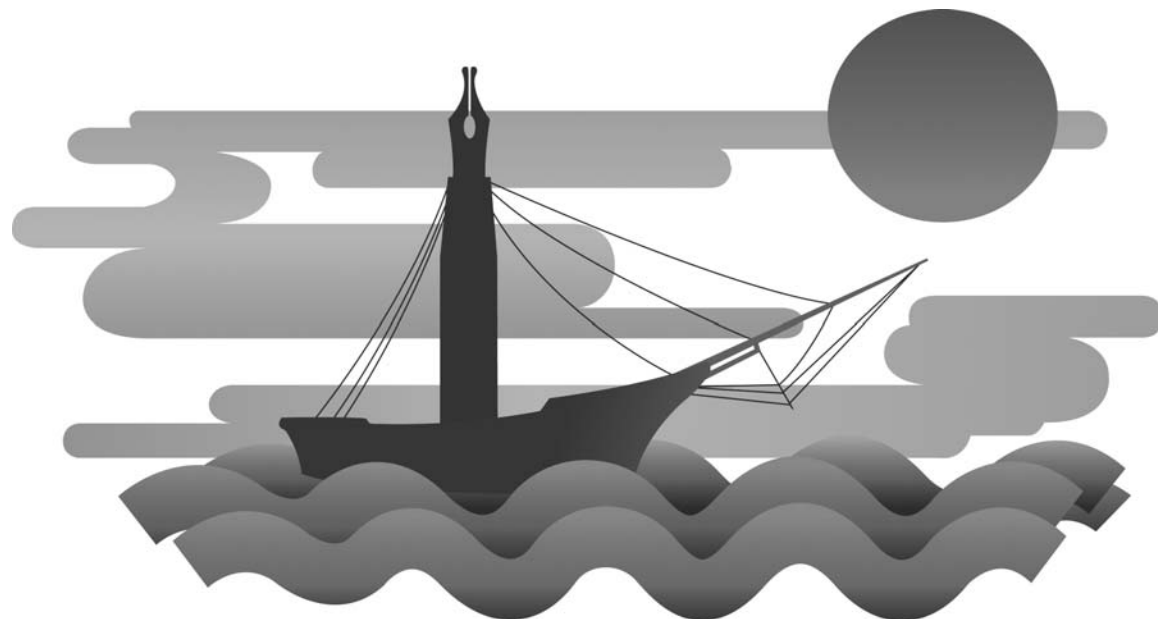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아프간 일상, 난민촌서 물 길는 소녀들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난민 수용소에서 이국 소녀들이 수동 펌프를 사용해 물통에 물을 받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